



2025
KAU
합격수기공모전
모음집

새상을 향한 내 꿈을 향한 기회

KAU
Korea Aerospace University

Create New Routes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특성화대학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과 우주라는 넓은 무대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기술의 흐름을 창조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AI융합대학 조○민	4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공과대학 정○현	7
그 원리를 직접 계산하고, 검증하고,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공과대학 이○호	9
여러분이 별처럼 빛나는 향대인이 되기 위해 쏟은 노력은	
공과대학 한○민	11
자신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공과대학 류○훈	13
한국항공대학교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자유전공학부 송○인	15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항공·경영대학 김○나	18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나는 지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항공·경영대학 송○연 20

이곳에 와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항공·경영대학 이○영 22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고민하며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

항공·경영대학 이○원 24

나중에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한국항공대학교를 포기한다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

공과대학 손○하 26

하늘을 향한 꿈, 열정, 도전 (Dreams to the Sky, Challenges)

공과대학 김○은 28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봐주는 대학

AI융합대학 이○윤 30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우현대 사회에서 통신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기술의 흐름을 창조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어왔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시용합대학 조○민
(명지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시용합대학에 합격한 25학번 조○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자공학, 특히 통신 기술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통신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기술의 흐름을 창조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어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많은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5G·6G, 위성통신, 항공 네트워크와 같이 날로 발전하는 첨단 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학교가 한국항공대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는 항공 및 우주 분야의 특화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자 및 항공전자, 시용합 ICT 등의 전공을 통해 통신 공학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학사 과정에서 레이더 제어를 배울 수 있는 대학은 국내에서 드물고, 이는 제가 통신망 설계를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자양분 삼아 저는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회로제작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에 저는 집에 있던 책 한 권을 펼쳐 C 언어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독학하며 기본기를 다졌던 것이 강하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경험 덕분에 2학년 때보다 더욱 많은 프로그래밍 활동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3학년 때 더욱 심화된 연구 제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공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겨울방학 동안 학습했던 C 언어 책의 저자가 바로 시용합ICT 전공의 교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 배움을 얻었던 교수님께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저에게 더없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2전공으로 시용합 ICT 전공을 선택하여 통신공학을 기반으로 한 항공 및 AI 기술 연구에 도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였고,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성장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 시용합대학이 신설되면서 다전공의 기회가 넓어진 것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1전공인 전자 및 항공전자 전공을 기반으로 시용합 ICT 전공을 함께 이수하여, 항공기 간 통신 시스템, 항공 안전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과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항공 통신과 네트워크 기술을 선도하는 훌륭한 교수진이 계시다는 점도 저의 학문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시용합대학에 입학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합격 후에는 저의 계획을 차차 실현할 생각에 너무나도 설레고 재미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항공대학교에서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문적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할 것입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전공 관련 학습과 개인 연구 개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 항공대학교가 학부 통합 모집을 도입하기 때문에,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반도체, ICT 등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모두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전자·통신공학의 기반이 되는 수학과 물리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이론적 개념을 실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예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물리II의 아날로그 AM/FM 변복조 개념을 접하며, 이를 이용해 직접 통신 환경을 설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신호가

변조 및 복조되는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AM/FM 모듈을 이용한 아날로그 송수신기를 제작해 통신 과정을 구현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 신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제작 과정 중 주파수 표류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PLL(Phase-Locked Loop) 회로를 활용한 신호 안정화를 떠올렸습니다. PLL 회로와 스피커, 그리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PIC 칩을 이용하고,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래밍 해 특정 전파를 수신하는 라디오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교과 개념에서 출발한 작은 제작 활동을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확장해 본 경험이 매우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의 생활기록부에는 프로그래밍과 회로 설계를 결합한 탐구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점이 면접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려 4개월 전부터 면접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매주 5회 이상 지속했습니다.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면접관이 할 법한 질문들이 떠올랐고, 이에 대한 답안을 미리 구성하며 대비했습니다. 수백 번의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답변의 명확성과 논리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면접을 4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두고 수능도 준비해야 하는데 면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걱정이 섞인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수능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면접을 확실히 준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면접이 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기에, 저는 정말 면접 준비에 사활을 걸었고, 동시에 수능 공부에서도 일정 부분 집중적으로 대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완전히 올인하는 전략이 아니라, 효과적인 시간 배분과 철저한 계획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명확한 지원 동기와 탄탄한 전공 관련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공에 대한 흥미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과 같이 특정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이를 바탕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에서 전공 관련 과목인 수학과 과학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예비 향대인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하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구와 연구 역량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꼬리를 무는 탐구를 통해 학습의 깊이를 더하고,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고교 생활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회 속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예시로, 영어 교과와 자유 에세이 쓰기 활동에서 '디지털 소외' 문제를 다루면서, 소외 계층이 겪는 불편과 불공정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과 융합 연구 시간에 '키오스크(Kiosk)'를 주제로 선정하여,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공공기관, 음식점 등의 실제 키오스크를 사용해보며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UI를 설계했습니다. 이후, C언어로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포용 키오스크'는 이름으로 명명해 교과 융합 연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은 면접에서도 질문이 나올 정도로 면접관분들께 인상 깊게 다가간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면접에서 저의 부족한 교과 성적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

다. 저는 성적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 학업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저의 성적을 변명하기보다는, 점점 상승하는 성적 곡선과 학습 태도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교과에서 배운 개념을 실제 탐구 활동과 연계하여 설명하며,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적용을 통한 학습을 해왔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결국, 제 합격을 결정지은 요소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태도, 깊이 있는 탐구, 그리고 학습의 실질적인 확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향대인 여러분도 스스로의 강점을 탐구 활동을 통해 증명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눈물을 흘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노력하고, 탐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고, 최초 합격이라는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제 노력과 준비가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보상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합적이 끝이 아니라,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인 KAU(한국항공대학교)는 단순히 항공 공만을 다루는 학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항공'이라는 단어만 보고 조종사 양성에 특화된 대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항공대는 전자-통신공학, 소프트웨어, 우주공학, 기계공학, 그리고 반도체 분야까지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학입니다.

특히, 실무 중심 교육과 연구 환경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어서, 학부 시절부터 다양한 실험과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공대학교라고 하면 항공 관련 직종으로만 진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항공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항공 덕후'라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학교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며, 체계적인 실험 및 탐구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랑항공 싶은 말

여러분은 입시가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운을 알아보고 자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강을 들을 때 한 강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운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일생일대의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운이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 중 하나가 바로 대학 입시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알아차리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운이 찾아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는 때로는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은 커지고, '과연 나는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불안에 떨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공부를 해도 원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친구들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길이 맞는지 끝없이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 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 힘들겠지만, 이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은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해온 노력들을 믿으십시오. 우리 학교는 꿈을 펼칠 기회가 가득한 곳입니다. 교수님들과의 연구, 프로젝트, 다양한 동아리, 그리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기들과의 만남까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하는 목표를 찾아가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은 여러분의 꿈을 향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이제 막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신입생이지만, 벌써부터 수많은 연구 기회, 대외활동, 공모전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내 길을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곳에서 자신만의 목표를 찾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노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내년 이맘때 같은 캠퍼스에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힘내세요! 올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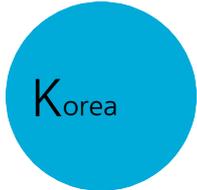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3학년이 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목표가 흐릿해진 뒤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조금 부진했던 저는 그 뒤로 항공 분야에 대해서 한참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한국항공대학교’입니다.

2025학년도 정시 (일반학생전형)

공과대학 정○현
(동명여자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여러분들은 지난 2022년에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당시 누리호 발사 카운트 다운을 뉴스로 지켜보며 떨리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발사체를 개발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꿈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반고등학교를 재학하며 발사체 연구원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기에는 버거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표가 흐릿해졌던 저는 힘든 학업 생활을 2학년까지 이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목표가 흐릿해진 뒤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조금 부진했던 저는 그 뒤로 항공 분야에 대해서 한참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한국항공대학교’입니다.

제가 항공대에 지원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학교의 빠른 변화였습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2025년 신입생부터는 단과대학으로 입학하고, 부전공을 필수적으로 고르게 되는데요, 꿈에 한 발자국 나아가기 전 나에게 어떤 전공이 적합한지 알 수 있고, 두 가지 전공을 동시에 공부함으로써 더 넓은 시야와 직업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발사체 개발 연구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우주공학 전공이 있는 공과대학을 고르게 되었고, 1학년 동안 제 관심 분야와 적성을 파악하여 부전공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항공특화 학교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우주항공 기술 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공과대학 내 다양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주공학전공과 항공공학전공 등 항공우주 기술과 관련하여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기술의 빠른 발전과 현직자분

들의 이야기를 항공대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세번째는 다양한 국제교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의 세계적인 트렌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항공대는 다양한 학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교환 학생 제도나, 문화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NASA, BOEING 탐방이나 에어버스, 보잉 대회 등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기업, 나라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한국항공대학교 ‘공과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그렇다면 항공대에 입학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일단 저는 정시 전형으로 항공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능 공부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수능 과목 중에서도 항공대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 정시 수능반영비율은 국어가 20%, 수학이 35%, 영어가 20%, 탐구가 25%였는데요, 이 반영 비율을 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수학과 탐구공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과 학과가 많은 항공대의 특성상 수학, 과학 과목이 확실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다른 과목도 물론 공부했지만, 특히나 수학, 과학 과목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시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일지 모르지만 ‘꾸준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꾸준히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꾸준히 하는 방법을 구체화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내신 공부도 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시 공부를 시작한 것은 고3 겨울방학 일부와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4개월이 전부입니다. 제가 어떻게 정시로 항공대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꾸준히 공부했다는 뜻은 4개월 동안 매일 수능 다섯 과목을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수능 공부를 하게 되면 인강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인강 개수와 분량을 살펴보고 날짜에 맞추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중에는 인강으로 공부해서 하루에 많지 않은 양의 인강을 봤는데, 한 과목당 하루에 1개~2개 정도만 봐도 4개월 동안 꾸준히 본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을 시청하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더 나아가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 주면, 수능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권화 노트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단권화 노트에는 아는 내용은 절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원별로 자주 까먹거나 풀이 방식이 복잡한 문제, 자주 틀리는 유형들을 정리해 두고 수능 날 당일에도 가져가서 노트를 복기했습니다. 필기하실 때는 아는 내용을 적는 건 시간 낭비라 중요한 부분만 필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주말에는 주중에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매주 토요일에는 모의고사를 스스로 봤습니다. 특히나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져서 시간을 맞춰두고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토요일에 풀었던 모의고사 오답을 진행해 주고 노트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이 '꾸준히'라는 것은 습관과 함께 가는 것이라 루틴이 필수적인데요, 저는 주중에는 학교 자습 시간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공부하고 그 외에는 수면으로 체력을 보충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일과를 빨리 끝낸 후 휴식 시간을 많이 확보하여 가끔은 재충전을 위해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꼭 하루하루가 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하루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항공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탐구 과목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수능 중에서도 탐구 과목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요, 항공대는 탐구 반영 비율이 25%인 만큼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것이 합격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탐구 공부를 할 때 딱 3가지는 꼭 지켜가면서 공부했는데, 첫번째는 모르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 풀이를 샤프로 적고, 틀렸다면 맞은 답을 '빠르게' 도출할 때까지 매일 누적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답을 외우기도 하는데 그럴 땐 일주일 정도 미뤄두었다가 다시 풀곤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모르는 문제 유형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탐구 과목 특성상 지엽적인 부분도 있고, 문제마다 풀이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둔 만한 노트가 필요했습니다. 단권화 노트가 절대 두꺼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능 전날까지도 탐구 과목을 공부했었는데, '지금 하면 뭐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은 정말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저는 수능 전날 탐구과목에서 오개념을 가지고 있던 문제를 찾아 다음 날 수능에서 정답을 고르게 된 경

험이 있습니다. 9모와 10모 성적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하고자 하는 공부를 꼭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또 탐구가 타 과목에 비해 소홀히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탐구만큼 전반적인 성적을 높여주는 가성비 좋은 과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탐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어 내년에 항공대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예비 향대인 여러분들에게, 힘겨운 입시 끝에는 대학 생활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공대에는 다양한 항공분과 동아리가 있습니다. 로켓을 제작하고 연구하는 동아리, 글라이더 동아리, 열기구 동아리 등 항공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양 과목들과 동아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항공우주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항공대에 와서 다양한 경험과 동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항공대에서는 여러 항공우주기술 분야의 현직자 분들이 오셔서 세미나 및 멘토링을 해 주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누리호 개발에 주역이셨던 고정환 본부장님이 학교에 오셔서 누리호 개발 현업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세상을 벗어나면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세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양한 세상을 항공대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공대에는 다양한 동아리와 멘토링 활동이 존재합니다. 저는 항공우주분야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항공대에 오게 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예비 향대인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을 키워 항공대 캠퍼스에서 선후배로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구입하여 하늘을 관측할 정도로 별자리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가슴 한에는 늘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서 공부와 관련 없는 비교과 활동을 하기란 눈치 보이고, 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에 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체 관측 동아리에 가입하여 정기 관측을 다니고, 밴드부에 들어가서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 관심사인 발사체 연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직접 발사체를 제작하고 연구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 생활은 정말 매 다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나이인 만큼 자유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참된 향대인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꼭 내년에 캠퍼스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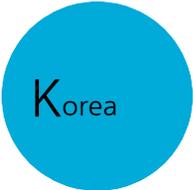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단순히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직접 계산하고, 검증하고,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을 찾았고, 목표가 생기다 보니 학업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공과대학 이○호
(청주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막연했던 꿈, 항공우주로 향하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운동 선수를 목표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중학교의 공백도 문제가 되었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다 보니 오랜 시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날,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 설문지 앞에서 나는 멈칫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었으니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제가 어떤 목표나 미래가 있어서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꿈을 찾는 중'이라고 적어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꿈이 없는 것을 넘어, 내가 어떤 것에 열정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나만의 분야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부딪쳐보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실험캠프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진로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공식으로만 배웠던 개념들이 실제 실험에서 구현되는 순간, 저는 '이론을 현실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에서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흥미는 2학년 때 참가한 '베르누이의 원리' 실험을 통해 항공우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풍동 실험을 통해 유체의 흐름을 가시화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움직임이 실제로 측정 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실험 후, 나는 관련 개념을 심화 탐구하며 항공역학, 유체역학 등 다양한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점점 더 항공우주공학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직접 계산하고, 검증하고,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을 찾았고, 목표가 생기다 보니

학업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우주 특화된 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체계적인 전형 준비: 꿈을 현실로 만들다
항공우주공학을 향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특히, 나는 '배운 것을 곧바로 적용하고 확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캠프에서 '베르누이의 원리'와 풍동 실험을 배운 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전산유체역학(CFD)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3D 모델링된 여러 에어포일 도면을 비교 분석하며 가장 효율적인 에어포일 형상을 찾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실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탐구활동과 동아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 주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배운 개념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확장하며 나만의 스토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저와 관심 분야가 같은 친구들과 모아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어 1학기에는 받음 각의 따른 카나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론적으로 먼저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역할을 나누어 코딩과 센서를 이용해 직접 구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레이놀즈 수에 대해 공부했고 또 실험 장비를 사 실험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를 생기부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실험과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저희를 계속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를 꼭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 중간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잘 표현하는 데에 집중했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지속적인 탐구 과정 제가 한국항공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관심과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탐구 과정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실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개념을 직접 활용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나의 관심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어진 활동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한 후 후속 탐구를 진행하며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선생님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많은 친구들과 앞에서 지금까지 한 심화 탐구를 발표하는 등 내가 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잘 정리하고 표현한 것도 한 몫한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그 때 어떻게 실험했는지 기억을 떠올릴려고 했고 제가 해왔던 탐구 활동을 논리적으로 글로 정리하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 글을 외워서 답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쓴 글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표현을 잘하기 위해 정말 여러번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저는 단순히 "항공우주 공학을 배우고 싶다"가 아니라, "항공우주 공학을 배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더 높은 곳을 향해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저는 이곳이 저의 꿈을 이루어줄 최고의 환경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발견하고, 관련된 탐구 활동과 연구를 통해 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한국항공대학교에서의 학업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미래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탐구했던 개념들이 대학 수업에서 더 심화된 이론으로 연결되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로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항공우주 산업은 협업이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이러한 환경에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한국항공대학교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초청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항공 우주 기업의 연구원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으며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공우주공학의 연구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항공기 및 우주선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이 저와 같은 진로를 가지고 있는 예비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공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 타 대학과 고민하는 학생들 모두 확신을 가지고 공부해서 꼭 항공 대학교에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저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 의지,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저의 진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성적에 한계가 있다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생기부 관리를 철저히 해 내가 목표로 하는 항공대학교에 오자! 라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 결과 성적은 조금 부족했는지 몰라도 학교생활과 철저한 생기부 준비 면접 준비로 제가 목표하는 한국항공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여러분이 별처럼 빛나는 항대인이 되기 위해 쏟은 노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공과대학 한○민
(유성여자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중학생 때까지 제 꿈은 군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국가를 위해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에 매료된 저는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통합 과학 수업에서 물리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인터스텔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우주에는 해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과학에 접점이 없었던 저는 그때부터 우주와 물리학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과학실험과 탐구를 진행했는데, 특히 항공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진행한 풍동실험이 저를 항공대학교로 이끌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양력 발생 원리로 알고 있던 긴 경로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새롭게 직접 긴 경로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기 위해 풍동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양력 발생 원리를 알기 위해 모델링하는 법을 배우고, 방학 중에도 물리실에 모여 풍동 시험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받음각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양력계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정말 몰입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말 뚜렷하게 에어포일 주위의 유동은 관찰하지 못했지만 동아리원과 함께 양력 발생 원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실험 설계부터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수정해 가는 과정이 저에게 항공에 대한 꿈을 거대하게 키워주었습니다.

항공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한다면 항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동기들과 함께 성장하며, 항공우주공학의 세부 분야인 신소재, 기계, 우주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항공우주 분야의 세계 선도국으로 성장시키고 개척하는데 기여하고자 한국 항공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항공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

지는 체육교육학과 입시를 준비했던 터라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공학과 관련해서 한 활동이 적을까 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우주에 대한 진로를 정한 이후로 저와 거리가 멀었던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수업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 동안 탐구했습니다. 특히 물리학 2 과목에서 물체의 평형 조건을 공부하던 중 비행기의 날개처럼 한쪽 끝에만 고정되어있는 구조에서 엔진과 같은 무거운 물체가 부착된 상태에서 어떻게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inventor 프로그램으로 힘들을 분석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식을 쌓아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를 다른 실험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한층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능동적으로 실험을 설계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가입한 물리동아리에선 물리실이 방치되어 있어서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물리 동아리원과 직접 청소하고 어떤 실험 장치가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고 저는 누구보다 물리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험을 설계할 때 필요한 장치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다른 동아리들이 실험을 진행할 때 도움을 주면서 다양한 분야의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공에 대한 애정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같이 수강하는 친구와 환경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넓은 바다가 있다는 우리 지역 특성을 사용해 수중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했는데, 물리학 시간에 탐구한 캔틸레버 구조를 적용했고 파도에 의한 떨림을 수집하기 위해 기존의 압전소자보다 민감하게 반응

하는 pdf파일과 아두이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서 직접 설치한 후 전압 출력을 분석하고, 캔틸레버구조에 변형을 주며 효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직접 수행해 내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공학에 대한 애정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접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 제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기록부를 매일 여러 번 읽으며, 실험을 진행한 동기, 과정과 시행착오, 느낀 점과 새롭게 배운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질문을 던지며 전공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매일 학교에 남아 서로 면접관이 되어주며 연습하는 것이 실전 면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영상으로 찍고 돌려보면서 사소한 자신의 눈, 손가락의 움직임과 말투를 고쳐 나가면 실전에서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히 “그… 저… 음..”이라는 습관을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답하기 전에 중요 키워드만 간단하게 정리해 그 상황에 적절한 답을 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실전과 같은 연습을 자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합격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한국항공대학교에는 항공 관련 공모전이 많습니다. 항공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항공 공모전인 에어버스 101, 록히드마틴, 보잉 데이... 3위안에 들면 직접 현장으로 견학까지 갈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전 세계 순위권에 들어가는 항공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경험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또 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항공에 관심이 많은, 같은 뜻을 가진 동기들, 선배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그 아이디어를 임직원 분들에게 직접 영어로 발표하는 기회도 제 자신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에어버스 101 대회 팀으로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항공대에는 3중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있어 새내기들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재학생 선배, 항공대를 졸업한 현직자, 그리고 교수님까지 세분의 멘토가 함께하며 학업과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 역시 지난 한 달 동안 선배님들께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팁들을 얻을 수 있었고, 놓친 공지도 다시 확인 할 수 있어 빠르게 적응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연합 멘토링 회식을 통해 같은 과 동기들과 친해지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현직자 멘토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2학년 세부 전공 선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대학교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불안함에 사로잡히기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될까? 라는 의심이

무기력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며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별처럼 빛나는 현대인이 되기 위해 쏟은 노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고등학교시절 항공대학교에 입학한다면 가장 하고 싶었던 에어버스 101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지식들을 아이디어로 낼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델링과 코드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좀더 공부를 할 예정 이기도 합니다.

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도 참여 할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국 항공대학교에 입학해 하고 싶은 대회나 공모전에 자유롭게 참여 하시길 바랍니다!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자신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히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하여 제가 경험한 불안과 노력, 그리고 그 끝에 얻은 결과가 단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능성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바라는...

2025학년도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공과대학 류○훈
(대구경신고등학교)

Korea

Aerospace

University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우주,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까지 항공우주는 제게 단순한 진로가 아니라 가슴 뛰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항공대학교라는 목표가 생겼고, 그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논술 전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내신이나 수능처럼 뚜렷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 '논술'이라는 전형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처럼 수능 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생각과 논리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대학별 특징을 파악하며, 저의 풀이를 꾸준히 다듬어 나갔습니다. 단순히 '잘 써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제 사고력을 넓혀가는 과정은 힘들면서도 매우 보람찼습니다.

이 수기를 통해, 한국항공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 길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히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하여 제가 경험한 불안과 노력, 그리고 그 끝에 얻은 결과가 단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능성'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한국항공대학교 논술 전형은 수리논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학에 대한 기본 실력이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대비의 출발점은 '글 쓰기'가 아닌 '수능 수학'이었습니다.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논리적인 풀이 과정과 명확한 서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리논술을 단순히 수학 문제를 서술형으로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상

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풀이의 핵심이 되는 수학적 개념을 적용해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보았기 때문에, 수능 수학의 개념과 유형을 완벽히 익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수학 I, 수학 II, 미적분과 같은 핵심 단원은 기초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기초 실력을 다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논술형 문제 풀이에 집중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자료는 한국항공대학교의 기출 문제와 답안지였습니다.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이 제공한 답안을 분석하며 어떤 흐름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답안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사고 방식과 서술의 논리성을 파악하고, 제 풀이와 비교하며 스스로의 표현력을 다듬는 데 활용했습니다.

또한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시간 제한을 두고 논술 문제를 풀었고, 풀이를 한 뒤에는 직접 칠팔해보며 문장의 명확성과 논리적 비약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수식과 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연습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독자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설명 구조를 의식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수리논술을 단지 글쓰기의 영역이 아닌 '수학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시험'이라 생각했고, 수능 수학이라는 기반 위에 논술이라는 표현 방법을 더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와 학교에서 제공한 답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 제게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었고, 그 꾸준한 노력이 결국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수리논술은 단순히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적 능력은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의 판단력,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손은 떨리고 시간은 촉박했지만, 그 순간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부여잡으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를 써 내려갔던 그 짧은 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결정적인 합격의 열쇠였던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은 실력뿐만 아니라 멘탈이 함께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결국 그것이 합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이라 믿었던 도전, 진짜 꿈을 이루다
작년,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에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정시 전형으로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항공우주 분야의 다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꿈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엔 항공대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항공대를 목표로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직접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를 찾아와 전시된 비행기를 보며 마음을 다잡고 반수를 시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역시 여기가 내가 오고 싶었던 곳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때부터 진짜 간절함이 아니었다면, 이번 합격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토록 원하던 한국항공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내가 정말 여기 학생이 맞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예전의 그 막막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 **기타 사랑하고 싶은 말**

한국항공대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전공과 관심이 일치하는 환경에 있다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항공과 우주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은 물론이고 동아리, 비교과 활동, 세미나 등 모든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진로와 연결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항공우주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수업 후에도 자연스럽게 로켓, 위성, 항공기 이야기를 나누고, 동아리 활동 역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실제 설계와 실험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또한, 교수님들과의 거리감이 매우 가깝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현장 경험이 풍부하시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먼저 다가가 주십니다. 관심이 있다면 교수님 연구에 참여할 기회도 열려 있고, 진로 상담도 정말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공대는 작지만 단단한 학교입니다.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이라

는 경제성이 뚜렷해서, 이 분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이라면 매우 밀도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캠퍼스라 동기들, 선배배들과의 유대도 강해서,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가는 느낌이 강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진로가 있다면, 그 꿈을 향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멀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고,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었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불합격이, 한 번의 좌절이 여러분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계속 자라고 있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떨어졌던 해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저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원하고, 그만큼 노력한다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넘어지고, 멈추는 것 같아도 결국 간절함은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저도 그런 간절함 하나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제가 꿈꾸던 학교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품은 그 꿈을 꼭 끝까지 믿어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한국항공대학교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선배들과 친목을 쌓고, 훌륭한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다른 곳에서는 해볼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2025학년도 수시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자유전공학부 송○인
(도당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구국의 나라, 한국항공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5학번 송○인입니다. 고민이 많던 7월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화학생명공학 관련 활동으로 빼곡히 채워두었고, 한국항공대와와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수시로 지원할 6개 대학을 정해둔 상태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화학생명공학을 전공하면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까?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미래를 잘 가꿔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시 박람회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대라는 곳을 전혀 모르던 세계, 그날은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날과 같았습니다. 우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모두 '나로우주센터'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댁이 고흥에 있어, 어린 저에게 갈 곳은 우주과학관뿐이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신기했고, 재밌었습니다. 다섯 살 때는 꼬깃 꼬깃 접은 종이 로켓을 날리며 즐거워했고, 조금 더 자라서는 우주에 관한 지식을 접하며 다양한 상상의 나라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있고 지내던 우주가, 수시 박람회에서 홍보대사 나라 분들의 설명을 듣던 순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 나 어릴 때 저걸 참 좋아했었지. 내가 한국항공대에 간다면, 다시 한 번 그 세계로 들어가 볼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한국항공대에 대해 깊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공학? 항공공학? 항공운항? 항공교통?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 있는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대에는 여러 전공을 경험한 후, 그중 제가 원하는 두 가지 전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만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수시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으로 한국항공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상 학생부종합 전형이 없었고, 저는 생활기록부를 화학생명공학 관련 활동으로 채워왔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야 했습니다.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성적이 100% 반영되는 전형이며, 추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존재했습니다.

수능 최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내신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국어의 경우, 저는 전교 1등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자신 있었고, 특히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어는 선생님의 해석에 따라 시험 문제가 크게 달라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빠짐없이 필기했고, 시험 전에는 유형별로 정리하며 저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서 영역은 글의 주제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중요한 개념을 정리한 후 여러 번 읽으며 완전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문학 영역에서는 백지 학습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와 표현법 등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후, 필기와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수학은 단순히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최소 세 번 이상 반복해서 풀며, 개념과 풀이법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작성했으며,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답 노트는 시험 당일 마지막까지 확인하며 실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제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내신 영어의 특성상 지문을 철저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며 반복적으로 읽고 익히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과학의 경우, 저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를 다녀 과학 4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정 과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깊게 공부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며 흐름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수능 최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자신이 자신 있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점수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고3 시점에서, 특정 과목의 점수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능 공부에 대해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특정 과목에 올인했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을 기본적으로 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결국 수능 최저를 맞추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내신 성적 관리와 수능 최저 대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만의 공부 방식과 전략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모든 대학이 그렇듯 내신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한 합격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의 성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었고, 이 점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수능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 시간들만 잘 버티면 반드시 항공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신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저는 시험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는 습관을 들였고, 수행평가 또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시험 성적은 일정 비율로 반영되지만, 수행평가 점수는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최종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평가 요소를 꼼꼼히 챙기면서 내신 관리를 해나간 것이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꾸준한 학습 태도와 목표에 대한 확신도 합격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결국 합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처음 학교에 방문했을 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꼬불꼬불한 입구를 지나 도착한 캠퍼스는, 주변이 온통 발로 둘러싸여 있었고, 흔히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시골 학교구나 싶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낭만으로 다가옵니다. 한 달간 학교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이 환경이 오히려 큰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공부에 방해될 요소가 적어 집중하고 싶을 때는 온전히 몰입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을 타고 조금만 나가면 홍대입구나 신촌에서 대학가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도 아늑한 카페가 있어 프랜차이즈 카페 없이도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고, 학식은 매일 새로운 메뉴로 제공되어 덕분에 살이 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일체형 책상이 없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화장실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공강 시간에는 과방에서 학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도서관입니다. 최근 리모델링된 도서관은 깔끔한 시설과 조용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독서실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시설뿐만 아니라 한국항공대에는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로켓 동아리인 SRS의 부원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조별로 모형 로켓을 만들어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동체, 핀, 연료 등을 제작하면서 이론으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었고, 곧 있을 발사를 앞두고 설렘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약 한 달간 합숙하며 로켓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험을 어디서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탐구하고, 다양한 지원과 협력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송골매 글라이더 비행 동아리 학생활동회 등 한국항공대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동아리들도 많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파란 하늘 아래 운동장에서 패러글라이더가 펄럭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순간마다 이게 바로 항공대의 낭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은 얼마 전 총학생회에서 주관한 항공 영화제였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돛자리를 깔고 새로 사귄 친구들, 선배님들과 함께 영화 탐견을 감상하는 순간, 이곳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대학 생활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 한국항공대학교에서의 생활이 매일 새롭고 설레는 이유입니다.

항공대 학생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닫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대학교 생활은 단순히 강의를 듣고 학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어 한국항공대학교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선배들과 친목을 쌓고, 훌륭한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다른 곳에서는 해볼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기다리는 기회들은 무궁무진



합니다.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해 나갈 저의 20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수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비상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앞으로의 비행이자,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비행이 높고, 그리고 멀리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항공 경영대학 김○나
(인천중산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는 인천공항 근처에서 12년간 거주하며 공항과 비행기를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미래 취업을 고민하던 시기에 저는 대한항공에 취직하고 싶다는 확고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보다는 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고자 하는 열망으로,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경영학과를 선택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KAU 미래인재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전형을 선택할 때 본인과 적성에 맞는 전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회나 교내 행사,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또한 제 전공에 대하여 깊이 있고 밀도있는 공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3년간의 저의 고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1학년 때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100인 토론회'와 '금융 특강' 등 학교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배운 점과 느낀 점을 보고서로 작성해 선생님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생회에 지원하여 매달 대의원을 진행하며 활발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경영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습니다. 창업대회에 참여하고, 경영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주석에 재무제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며, 모의투자 어플을 통해 직접 투자도 경험해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인 '경제', '실용 경제', '경제 수학' 등의 과목을 신청해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3학년 때는 전공 심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버즈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 패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언어와 매체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가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미적분'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배워야 할 것을 회피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첫 번째로 성적의 상승 곡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만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해 성적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터득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성적을 1~2등급까지 상승시키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활동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 챗GPT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적당히 활용한다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노력 없이 활동을 진행한다면 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진정성 있고 밀도 있게, 저만의 방식으로 활동에 임했으며 이러한 점이 면접에서 돋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전공을 회피하지 않은 점입니다. 저는 문과 학생으로서 전교생 중 유일하게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항공교통물류학과나 물류학과, 또는 경영학 분야에서도 미적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전공에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이 합격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요소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목표입니다. 대한항공에 취업하고자 하는 저의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보니 지금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미래인재전형을 위한 면접 준비 과정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면접 준비의 틀을 잡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어봅니다.

면접 준비의 첫 번째는 활동 정리와 준비입니다. 교내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느낀 점과 배운 점을 한 줄씩 정리해두었고, 직접 작성한 PPT, 보고서, 조사 자료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별로 분류하여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수시로 꺼내어 복습하며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 숙지와 이해입니다. 면접을 준비하기 전, 정리한 파일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교내 선생님들께 질문했습니다. 암기보다는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과정이 끝난 후에는, 해당 활동들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예상 질문 준비입니다. 제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예상 질문을 뽑아내고, 이에 대한 모의 답변을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픈 답변이 많았지만, 여러 번 수정하면서 점차 정교하고 제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답변들로 다듬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모의 면접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작성한 답변들을 천천히 읽어보며 자기소개 정도만을 암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3명씩 팀을 꾸려 2명이 면접관이 되어 질문을 하고, 받은 답변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방식을 한 달 정도 지속했습니다. 처음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는 몹시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면접은 제가 해왔던 활동을 설명하고, 저 자신을 어필하며,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면접을 대하며 점차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항대인이 된 지금 저는 현재 열기구 동아리 ‘라퓨타’와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동아리 ‘송골매’ 등 항공대의 멋진 동아리들에 참여하며, 항공의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에 지원해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현재는 경영 학생회 ‘가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과 선배님들을 만나며 새롭고, 값진 경험들을 얻고 있습니다.

열정 넘치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깊고 밀도 있는 흥미롭고 새로운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나날들이지만 즐겁고 값진 순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한항공에 입사하는 멋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곧 후배가 될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앞으로의 비행이자,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비행이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넓은 항공대 운동장을 동기들과 함께 걸으며,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나는 지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저에게 한국항공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닙니다.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시발점이며, 언젠가 창공을 누빌 저를 위한 가장 완벽한 출발선입니다.

2023학년도 정시 (일반학생전형)

항공 경영대학 송○연
(백신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에게 있어 하늘은 ‘꿈’입니다. 어릴 때부터 푸른 하늘을 보면 막연한 동경을 느꼈고, 점점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늘길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항공계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저는 항공기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종사들과 교신하며 하늘의 교통을 조율하는 항공관제사라는 직업에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항공 관제사가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비행 중이던 항공기가메이데이(Mayday)를 선언했고, 관제사는 침착한 판단력과 기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도 위기 속에서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항공교통 전공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공교통 전공은 항공기 운항, 항공법, 관제 절차 등 항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제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고, 실무 경험을 쌓으며 관제사로서의 자질을 길러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전공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항공관제사가 되고 싶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한국항공대학교의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 100% 반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항공대학교는 항공경영대학 단위로 학부 모집을 진행하며,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궁극적으로 항공관제사가 되기 위해 한국항공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정시 전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을 반영하며, 반영비율은 모집 단위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성적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1년간의 재수 생활을 거쳤고, 현역 대비 백분위 20점 이상의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목표했던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며 효과를 봤던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반에는 글을 하나하나 천천히 정독하며 ‘왜 이 내용이 나왔는지, 문장 간의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분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러한 방식이 제 독해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며 출제 경향을 익히고, 인강 강사들의 해설을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기간에는 모의고사 2개를 연달아 풀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수학의 경우 저는 현역 때 6등급을 받을 정도로 기초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강을 들으며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고, 개념 문제를 풀면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에는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았지만, 3~4회독하며 기출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사실 모의고사나 고난도 N제 문제를 풀지 않았지만, 기출문제만 철저히 분석해도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는 2등급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므로 타 과목에 비해 투자 시간을 비교적 적게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을 활용해 기출문제 4문제씩을 풀었고, 단순히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나오는 근거를 찾고 문맥을 파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실제 모의고사를 풀 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루에 20분씩 짧게 공부하는 대신, 일주일에 2~3일은 풀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니 시험장에서 더 오랜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저는 사회탐구를 선택했는데, 탐구 과목의 경우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능을 통해 대학을 가려는 경우, 탐구 과목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탐구 성적에 따라 대학 라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항공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탐구 과목의 반영 비율이 다른 과목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시를 준비하신다면 탐구 과목을 반드시 잡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탐구 과목은 단기간에도 성적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어와 수학에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문제집과 인강 자료가 있지만, 결국 수능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최소한 최근 5개년치 기출문제는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힘이 길러지고, 자연스럽게 문제 유형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수능은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라 패턴을 익히고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저는 1년간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하며 성적을 올렸고, 그 결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특별한 합격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해 공부한 시간과 노력이 결국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이 결국 원하는 길을 걷게 된다고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곧 시작될 대학 생활을 떠올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항공 분야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국항공대학교는 그야말로 꿈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항공 및 우주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실습과 연구를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관제탑 실습, 항공기 정비 실습, 비행 교육 등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항공업계에서 활약 중인 선배님들이 많아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교수님들 역시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라 더욱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올해 입학 후, 제가 가장 만족했던 점은 비슷한 목표를 가진 동기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

학 전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걱정이 많았지만, 새내기 배움터를 다녀오면서 동기들뿐만 아니라 선배님들과도 편하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동기들과 서로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더 즐겁고 보람찬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분야를 좋아하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다양한 항공 관련 동아리와 공모전이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열기구 동아리, 천체관측, 패러글라이딩 등 타 대학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동아리들이 개설되어 있어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어버스 공모전, 나사(NASA) / 보잉(BOEING) 방문 프로그램과 같이 글로벌 항공업계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는 한국항공대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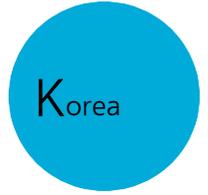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은 많지만, 그곳에 오르려는 사람은 적다. 저는 그 소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재수를 하며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 입학을 꿈꿨고, 결국 제가 원하던 한국항공대학교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합격증을 받았던 그 날의 벅찬 감정과 처음 교정을 걸었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입학 후,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은 항공우주박물관이었는데, 그 앞 자판기에서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인 마하 키링을 발견하고 주저 없이 구매했습니다. 지금도 가방에 달고 다니며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항공대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들어 뿌듯해집니다.

또, 넓은 항공대 운동장을 동기들과 함께 걸으며,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나는 지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저에게 한국항공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닙니다.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시발점이며, 언젠가 창공을 누빌 저를 위한 가장 완벽한 출발선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다가온다'는 말처럼, 지금의 노력과 도전들이 모여 결국 빛나는 미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이 영광이며,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싶은 한국항공대학교 생활을 힘차게 이어나가겠습니다!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항대는 굉장히 전문화 된 지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라 하던 항공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못 할 것이 없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항공 경영대학 이○영
(새솔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유튜버라는 유튜브 영상 속 유창한 영어로 세계 각국의 기장님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항공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후 관제 관련 흥미와 재미가 생김에 따라서 미국 국토교통부 911 당시 관제사분들 인터뷰 영상을 접하게 되었다. 그 영상 속 마이크 맥콜맥이라는 관제사분의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가 말하길 "911 당시 우리의 대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고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나도 그들과 함께 발맞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관제의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고 다짐하였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3학년 1학기 동안 아침마다 날씨 알려주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항공에 관해 알게 된 점이 굉장히 많았다. 예를 들면 폭염 시 활주로 상태에 관해 궁금하여 조사해 본 결과 활주로는 뜨거운 온도로 인하여 팽창하는 쇼빙 현상이 생겨 폭염 특보를 내려 활주로에 살수 작업을 한다고 한다. 또한 풍향별 풍속계급 빈도와 방위별 풍향 출현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윈드 로즈에 관해 알게 되었고 실험도 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보고서도 작성하였다. -자율주제 탐구 시간에 CAT라는 정밀계기접근 비행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ppt를 만들고 이에 관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 후 보고서를 만들어서 담임 선생님과 토론도 하고 의견을 공유한 것이 너무나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과학탐구마당 시간에 항공기 종류에 관하여 마인드 맵으로 작성하여 항공기종 별 특징을 나열하고 장단점을 찾은 점 -포네틱 코드에 관해 탐구했었는데 직접 공항에가서 포네틱 코드를 본 나의 감상평을 작성했던 점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2. 3학년 때 관제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조사하고 발표한 것. -항대가 원하는 인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 점. -수동적인 사람이 아닌 능동적인 사람임을 강조하고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뽐냈던 점. -남들과 난 다르다는 마인드 -항대, 과를 애정하는 마인드 -면접 때 떨지 않고 웃는 얼굴로 적당한 어투로 얘기했던 점 -미국 논문까지 찾아보며 절대로 다른 학생들은 찾을 수 없는 주제를 찾고 탐구했던 점 -항공대 합격하였던 분들의 후기 내용을 보며 참고했던 점 -교과활동 때 진로와 많이 엮어서 작성한 점 -교과 외 활동시 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많이 나가고 행사도 많이 참여한 점

◆ 예비 항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우리 학교는 능동적이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 하는 것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전 세계에 내고 싶어하는 인재를 좋아합니다! 제가 들어온 전형은 수시 학종이기 때문에 생기부의 내용과 면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법한 주제로 정말 다양하게 발표도 하시고 ppt도 만들어보시고 보고서도 작성해 보시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실험도 정말 많이 해보세요. 주제를 찾을 때는 남들이 다 하는 주제가 아닌 아무도 하지 않을 법한 주제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주제 찾기가 힘들시다면 관련 논문을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소스들을 찾으실 수 있으시니 그 소스들을 잘 조합해서 주제를 만드시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은 네이버가 아닌 구글에 영어로 찾아보시면 더욱 더 많고 질 높은 소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면접에 관해서는 나를 뽐지 않으면 그들의 손해! 라는 에티듀드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면접 보시고 면접 준비 하실때 타임어 맞춰서 해보시고 영상으로 찍어보시고 내 목소

리가 괜찮나 녹음도 해보세요!

또 항공대 홈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서 지금 항공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인재상을 찾고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을 아주 추천합니다. 항대는 굉장히 전문화 된 지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공부하나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라 하던 항공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못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열정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이고 가세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고 계신 그 길이 맞는 길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덜 우시고 덜 자책하시고 목표한 그 길 가셔서 목표한 꿈을 꼭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년에 꼭 항대에서 봐요~~!!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고등학교 때 다양하고 특출난 주제로 탐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하고 실험한 점이 저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 때 항대를 다니며 항대를 졸업하고 난 후 엄청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점을 면접관님들에게 강조했던 점 또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 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고도화된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를 담기에는 너무 작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고 정말 우연히 관제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관제사라는 직업은 저의 고등학교의 생활의 전부이자 저의 삶이자 저의 원동력 이고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 줍니다. 항공대, 관제사에 관한 저의 애정이 저를 이 학교에 오게 만들었고 합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직업, 과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은 다 티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어려서 부터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해준 제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Korea

Aerospace

University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하여 입학하여 여러 분야의 수업을 듣고, 다양한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고민하며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항공 경영대학 이○원
(창덕여자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진로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여러 진로 프로그램과 진로 검사를 진행하여 보았지만 여전히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다만 사회 과목에 많은 흥미를 느꼈고, 따라서 문과 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중 가장 진출 분야가 넓다고 판단한 경영 분야에 대해 알아보며 해당 학과로의 진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경영 분야는 저에게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입시의 막바지에 수시 원서를 작성하며 저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수시 박람회, 대학교 설명회 등에 다니며 신중히 결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항공대학교'에 대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만이 지닌 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여전히 확실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저이기에 신입생 전원이 무전공으로 입학한다는 점이 저의 조급함을 덜어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재학생이 복수전공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개인의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의 노력

저는 항공경영대학(사회적성) '미래인재 전형'으로 항공대학교에 합격하였으며, 고등학교 생활 내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였습니다.

1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경영학과라는 학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제가 해당 진로를 꿈꾸게 된 과정이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이후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토론과 아카데미 활동에 참여하여 제 관심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어떠한 문제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인터뷰를 하거나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교내에 카드뉴스나 포스터를 공유하는 등 단순 자료조사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외에도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마케팅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학교 매점주인분과 상의하며 세일 행사를 기획하고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여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급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번씩 맡았고, 동아리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과목 부장을 여러 번 맡았습니다.

교과 세특의 경우, 수행평가 중 주제를 정하여 발표나 글을 쓰는 경우에는 꼭 교과목과 진로를 관련지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교과목 하나당 한 번씩은 꼭 양해를 구해 추가로 발표를 하였고,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땐 해당 과목 선생님과 논의하여 주제를 정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동기와 활동을 통해 내가 얻고 느낀 점 또한 중요함을 알고, 이를 꼭 언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신 공부의 경우 초반에는 학원에 많이 의존하였지만, 이가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알고 이후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를 우선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께 질문하며 공백을 메꾸었습니다. 노트 정리하는 방법이 저와 잘 맞아 1회독을 끝낸 후에는 꼭 노트에 정리하여 시험직전까지 다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덱스로 나누어져 여러 과목을 한 노트에 정리할 수 있는 인덱스 코벨 노트를 유용하게 사용하여 저와 공부 성향이 비슷하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시청 기록을 꺼 알고리즘 기능을 중단시킴으로써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휴대폰을 플더폰으로 바꾸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접 준비는 학교에서 진행한 세 차례의 모의 면접을 통해 감을 익혔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여러 번 읽고 정리하며 그동안의 활동을 되새겼고, 이 과정에서 과거 활동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표 자료나 제출했던 글 등을 지우지 않고 모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 한국항공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학교의 인재상과 추구하는 방향성을 파악하고, 지원 학과의 개설 과목을 참고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제 생활기록부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ESG)'의 내용이 특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지속 가능한 경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던 한국항공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잘 부합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으며, 한국항공대학교가 리더십을 중요한 자질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이나 부회장 등의 직책을 여러 번 맡았던 경험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저는 문과 계열이지만 과학 과목에서 유독 높은 성적을 받았었는데, 이학 적성과 사학 적성을 모두 뽑는 학부인 만큼 이러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한국항공대학교는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전공과목을 배우는 것을 넘어, 현직 전문가들을 초청한 세미나가 자주 열립니다. 실제로 유 퀴즈 누리호 편에 출연하셨던 고정환 본부장님과 같은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기회도 주어 집니다. 또한, 항공 관련 동아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제작동아리와 로켓 동아리는 물론, 열기구와 패러글라이딩 동아리처럼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동아리들이 주요 동아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월간 비행'이라는 항공 잡지를 출판하는 소모임의 일원으로서 항공에 대한 흥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중앙에 실제 비행기가 있어 등교할 때마다 직접 비행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비행기 보면서 학교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사랑하고 싶은 말

벌써 대학생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대학교 생활이 어색하고, 고등학교와 달리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지만,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도움 덕분에 천천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여러 분야의 수업을 듣고, 다양한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고민하며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딩 입문

과 R과 함께하는 통계 과목을 들으며 코딩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였고, 다른 학교의 문과 계열로 진학했다면 접하지 못했을 분야여서 스스로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알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항공 및 우주와 관련한 활동을 할 때면, 환경건축과 관련한 학과를 준비할 때와는 다른 특별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한국항공대학교를 포기한다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공과대학 순0하
(일산동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올해 한국항공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한 25학번 순0하입니다.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의 경험을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다른 신입생분들과 다르게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환경건축에 관련한 학과의 진학을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바꾸어 입학했습니다. 사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그동안 해왔던 활동에 맞추어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진로를 바꾸려는 저의 선택을 말리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려는 학과를 바꾸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 있어 큰 결심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항공대학교 공과대학에 지원한 이유는 놓을 수 없는 저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주와 하늘을 동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경만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주와 하늘을 향한 열망은 잠시 접어두고 앞으로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 환경, 건축과 관련한 학과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및 우주와 관련한 활동을 할 때면, 환경건축과 관련한 학과를 준비할 때와는 다른 특별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한국항공대학교를 포기한다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대학교는 2025년 신입생부터 전공자유선택제와 복수전공 의무제가 시행되어, 하늘과 우주에 관련한 지식을 다양하게 배우고 싶었던 저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제가 선택한 입시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교과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다양한 항목들이 평가되는 전형입니다.

제가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크게 비교과 활동, 내신, 면접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교과 활동입니다. 저는 다른 학우분들보다 비교적 늦게 이 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채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핵심적이고 견고한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모집요강을 보며 서류종합평가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서류종합평가방법에는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의 생기부와 비교하며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채울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늦게 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진로 탐색 활동과 노력한 경험,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기존 생기부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 관련 분야에서의 활동을 채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항공우주와 관련된 논문과 기사들을 찾아 읽으며 배경 지식을 쌓았고, 최근 연구 동향에 맞춰 앞으로 탐구할 주제를 찾아 직접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과와 관련된 탐구 활동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동안 화학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모둠장을 맡아 실험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동아리의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학급회장을 총 네 차례 맡았습니다. 다수의 학급회장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을 배우고, 학급의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 주도형 체험학습 지원단으로 활동하며 학급의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과학과 관련된 체험활동, 교내 대회, 독서 활동 등에 꾸준히 참여하며 학업과 비교과 활동 모두를 균형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공과 관련된 과학탐구 과목을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기하와 미적분 과목도 선택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서로 연관된 과목이다 보니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3년 모두 성적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목표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성적을 크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수학 성적이 뛰어난 편이 아니었기에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 대신, 3~4 권의 문제집만 사서 3~5번 정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그 결과, 성적이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면접입니다. 저는 약 6주 동안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은 대부분 자신의 생활기록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크게 생활기록부 숙지하기, 예상 질문지 만들기, 답변 암기하기, 실전 연습하기의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기록부 숙지를 위해 저는 여러 번 읽기를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3~5번 정도 읽다 보니 내용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였고,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예상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가장 힘든 부분이었었는데, 어디에서 질문이 나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공과대학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전공과 관련된 교과/비교과 경험은 무엇이 있는 지 등을 생활기록부와 한국항공대학교 사이트를 참고하여 분석한 뒤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나갔습니다. 또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 암기를 위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후, 그 답변에서 키워드를 뽑아 이를 연결하며 말을 이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카메라를 켜고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면접을 연습하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한국항공대학교 공과대학에 뽑힌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합격 요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공동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수의 학급회장과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합격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 예비 학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생각하는 한국항공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동아리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 항공 및 우주와 관련된 동아리가 많습니다. 특히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글라이더와 같은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경험인데, 한국항공대학교에서는 수업이나 동아리를 통해 이런 활동들을 경험할 기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합니다. 또한, 하늘을 향한 꿈을 공유할 수 있는 동기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대회와 활동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초반, 저는 그때의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항공우주 분야에 꿈이 있다면 한국항공대학교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시기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하늘을 향한 꿈, 열정, 도전 (Dreams to the Sky, Challenges).” 이것이 한국항공대학교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wings 달고 꿈을 향한 비행을 시작하세요. 그 과정이 행복하고 보람찬 여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학교장추천전형)

공과대학 김은
(선일여자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는 오래전부터 우주 발사체에 깊은 흥미를 가져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비행기와 로켓을 보며 막연한 동경을 품어왔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실제로 항공·우주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공과대학 전형을 통해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한 후, 항공우주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 우주공학을 복수전공하며 방산·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제2의 나로호를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학교장추천 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 3년 동안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목표’였습니다. 저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룬 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때 공부의 원동력을 얻는 학생이었습니다.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점수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뚜렷한 목표’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단순히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우주를 향해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부 과정이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적이 아닌 꿈을 향해 공부했고, 그 결과 좋은 내신 성적을 거두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한국항공대학교는 S·P·A·C·E라는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중시합니다. 그중 S는 글로벌 소통 역량, A는 통섭융합 역량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네 과목을 각각 25%씩 반영하는데, 이를 통해 항공대는 다른 대학의 공과대학보다 영어와 국어 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성적이 3년 동안 교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수했으며, 국어 또한 부족함 없는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국어와 영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그 결과 항공대가 원하는 문·이과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로 평가받아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한국항공대학교에서의 생활을 더욱 즐기기 위해서는, 우주와 항공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항공 분야를 좋아하는 향덕으로서 이 학교에 들어와, 교내 곳곳에 붙어 있는 항공·우주 관련 공모전, 행사, 채용 포스터 등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꿈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설렘과 동기부여를 얻곤 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는 1952년 개교 이래로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깊은 역사를 지닌 명문 대학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우주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이 활발하여 졸업 후 진로의 폭도 넓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덕분에 학생들이 빠르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있는 캠퍼스 그리고 우주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이 학교만의 큰 강점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주요 과목을 반복해서 복습했고, 모르는 개념은 절대 넘기지 않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항공과 우주를 좋아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한국항공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닌, 진짜 꿈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며칠 전, 학생 시절의 파일들을 정리하다가 인생설계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중학생 때 기술·가정 시간에 수행평가로 작성했던 인생 계획 발표 자료였습니다.

그 중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한국항공대학교이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이 학교가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중학생 시절 제가 설계한 인생의 방향으로 걸어왔음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제 인생을 비행기에 비유하자면 이곳까지 오는 길이 직항편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좋아하던 어린아이는 조종사, 관제사, 승무원을 꿈꾸다 한때는 생명 연구원의 길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신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흥미와 옛꿈이 결합되어 하늘을 넘어 우주를 연구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왔지만, 결국 저는 제 내면이 원하는 꿈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길을 잃어도, 중간에 경유하며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느 순간, 꿈꾸던 도착지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꿈, 열정, 도전 (Dreams to the Sky, Challenges).” 이것이 한국항공대학교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wings 달고 꿈을 향한 비행을 시작하세요. 그 과정이 행복하고 보람찬 여정이 되길 바라며, 도착지에서 여러분을 동문으로 만나 뵙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Korea

Aerospace

University

2025 KAU 새내기 입학수기

한국항공대학교는 내가 무엇을 못했는지, 왜 못했는지가 중요한 학교가 아니라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봐주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시융합대학 이○윤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진학하면서 코딩, 전자, 드론 등 다양한 컴퓨터 관련 분야를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1학년때부터 교내 및 교외 공모전과 여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 분야에 대한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이론 학습이 아닌 직접 드론을 제작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드론과 소프트웨어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로젝트와 교내 활동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는 바람에 학업 성적이 높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고 성적에 맞춰 다른 대학교의 인공지능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론에 대한 미련과 나에게 더 적합한 학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도전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하고 원하는 전공을 찾던 중 한국항공대학교의 학부 모집 시스템을 통해 2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을 통해 원하는 학문을 더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분야를 전공하면서 다른 분야도 부전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제가 원하던 학교였기에 한국항공대학교 Ai융합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이 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성적이 아닌 생활기록부와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디어 공모전, 생활 아이

디어 공모전, 청소년 발명 프로그램, 유튜브와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며 차별화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흥미를 충족시키는 뿐만 아니라 저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코딩 및 프로그래밍에 가장 큰 흥미를 느끼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드론 제작과 드론축구 활동을 통해 드론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적용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저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성과도 이루며 저의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이런 경험들은 면접에서 큰 감점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상세한 설명을 막힘없이 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닌 각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의 경험들이 단순한 경험이 아닌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 어떤 성장을 했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저의 강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으며 앞으로 어떤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전달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저의 활동들이 고교시절 학생부에 적힌 희망 진로와 연관이 있고 더 성장하기 위해 이 학교를 선택했고 이 학교에서 하고싶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저의 열정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그저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것을 넘어서 이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지 이야기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의 목표와 입학 후 학교에서의 학업 계획을 명확히 설명한 것이 합격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 학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한국항공대학교는 내가 무엇을 못했는지, 왜 못했는지 중요한 학교가 아니라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봐주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성적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하였지만, 실제로 면접에서는 성적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고교 시절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지 내가 어떤 활동에 열정을 쏟았으며 무엇을 잘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활동들과 노력들에 대한 인정을 해주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질문이 되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면접 본 학교 중 유일하게 성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은 곳이 한국항공대학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는 전형을 준비하시는 예비 신입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왜 못했는지에 대한 답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다가 아닌 자신의 열정과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날씨가 좋은 날 학교 중간에 있는 항공기가 정말 예쁘게 빛납니다. 엄청나게 큰 항공기가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된 것 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라도 합격하시게 된다면 제가 느낀 감정처럼 여러분의 꿈도 항공기에 실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